

임인(壬寅)년 포스트코로나(뉴노멀)시대 건축학회의 역할과 방향

The Role and Direction of the AIK in the Post COVID-19(New Normal) Period New Year(2022)

박진철 Park, Jin Chul
 참여이사, 논문편집위원장,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jincpark@cau.ac.kr

서론

임인(壬寅)년 새해가 밝았다. 임인(壬寅)은 흑범을 의미하며 강한 진취적인 기운이 발생하여 천지가 생동하고 그동안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봄이 왔음을 알리는 기운이라고 한다. 경자(庚子)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전염병은 신축(辛丑)년을 걸쳐 약 2년 동안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괴롭혀 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각고의 노력은 빠른 백신개발과 접종을 가능케 하여, 그 결과 지난 해 말에 위드코로나 상황으로 일부 호전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새로운 신종 변이의 등장과 확진자 증가속도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불안한 상황에 우리는 새로운 임인(壬寅)년의 기운을 받아 새해를 맞이하였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전염병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500여 년 전에 수천만 명이 희생된 흑사병, 100년 전 스페인 독감 등 근자의 상황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인류는 '지속' 즉,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인류의 '생존'은 계속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위기 이후에는 경제, 문화적 대호황을 이루었다.

역사는 예언될 수 없지만 과거와 현재는 미래를 위한 타당하고도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비록 코로나 전염병이 지난 2년간 우리를 괴롭혀 왔지만 우리는 과거 역사를 교훈삼아 또다시 새로운 준비 즉, 포스트코로나(뉴노멀)시대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학회의 역할과 방향

대한건축학회는 지난 1945년에 설립되어 건축인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부에 건축관련 법제도를 제안하며,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추구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학술단체이다. 즉,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술단체 회원으로서 포스트코로나(뉴노멀)시대 학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1) 학회 회원분포도를 고려한 배려

대한건축학회는 어느덧 창립 77년의 역사와 회원수 27,419명(2021.12.10. 기준)을 보유한 대형학회이다. 회원들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대학 및 연구기관(약 55%)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건축설계(약 15%), 건축시공(약 12%), 컨설팅(약 7%), 공사 및 정부기관(약 5%), 구조(약 3%), 설비 및 기타(약 3%) 순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학회에서는 회원분포도를 고려하여 학문연구와 교육, 기술 및 제도 등을 같이 다룰 수 있는 융합(Convergence)과 통섭(Consilience, 전체를 다스림)의 개념으로 회원들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2)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코로나 상황에서의 건설분야 중요 키워드는 바이오헬스, 탄소중립, 로봇, 드론,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등이다. 특히, 과거와 다른 극심한 기후변화현상은 경고가 아닌 재앙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되는 환경하에서 향후 최소 5년간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으로 볼 수 있다. 즉, 탄소중립은 우리가 지구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에서는 패시브하우스,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건물, 그린리모델링

건물 등의 보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회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정부를 상대로 각종 포럼 및 세미나 등 공공의견수렴의 장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기술자료와 관련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회원들이 설계, 시공, 구조, 컨설팅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미래 건축교육제도의 방향 제시

미래 건축인재를 양성하는 건축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건축은 종합학문이라고 하듯이 건축학, 건축공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가 서로 소통하고 융합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직도 5년제와 4년제가 분리되어 서로의 인증만을 추구할 뿐 진정한 건축교육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다.

10년 전인 2011~12년은 필자가 학회 담당이사를 맡고 있을 때였으며, 5년제 교육을 시작(2002년)한 후 1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필자는 기억한다. 당시 건축교육의 문제점을 공청회를 통하여 제시한 바 있고, 또한, 5년전(2016~17년) 학회부회장 재임시에도 건축교육제도의 개선안과 해결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제점만을 논의할 뿐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어떤 액션플랜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다행히 필자의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학년부터 분리모집(5년제-40명/4년제-40명)하던 기존의 프로그램을 2023년 3월부터는 1,2학년 통합(80명)하여 3학년 진학시 5년제와 4년제로 나누는 건축 교육으로 전환시켰다. 즉, 이는 1,2학년 통합프로그램을 통하여 건축을 목표로 입학한 모든 학생들에게 건축에 대한 기본 및 소양교육을 기본으로 이수한 이후 3학년 진학시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건축학, 건축공학의 심화된 교육 및 종합형 인재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된 건축통합교육프로그램은 현재 많은 건축 관련 대학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학회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건축의 5년제와 4년제가 서로 소통하고 융합할 수 있는 세부목표 설정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건축교육의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4) 대한건축학회논문집(JAIK, SCOPUS)의 SCI(E) 상향등재

대한건축학회논문집(JAIK)¹⁾은 1985년 10월에 제1권 제1호 첫 발간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396호가 발행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에는 SCOPUS 심사위원회(CSAB)의 등재평가에 통과(Accepted)되었고, 2021년 2월 논문색인 협정을 맺었으며, 2021년 5월 최종 SCOPUS 등재지에 등록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2020.1월호부터 소급인정). 이러한 과정에는 평소 기존의 계획계/구조계의 분리출간(1998. 4월 이후)에 따른 논문편수 감소 문제를 2020년 6월호부터 다시 통합발행 함으로써 SCOPUS등재 평가시 가점도 한몫을 하였다.

SCOPUS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로 Elsevier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비영어권 국가들의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국어로 작성된 우수한 논문을 가진 대학들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인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대학연구능력 평가시 SCI(E)로 평가되는 것을 고려할 때 대한건축학회논문집(JAIK, SCOPUS)의 SCI(E) 상향등재는 꼭 필요한 상황이다.

(5) 건축서비스 관련 제도개선과 건축산업진흥원 설립

코로나 팬데믹 속에 2021년 국내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약 1.7% 정도 상승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건설환경은 선진국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우리 건축인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함과 동시에 건전한 건축서비스산업 문화가 조성되고, 특히, 건축서비스 품질강화 등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부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되어 각계에

1) 회지 '건축' 29권 126호부터 논문만으로 분리 발간

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이끌고 가기 위한 조직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는 현실이다.

다행히 최근에 들어서 학회가 중심이 되어 (사)한국건축산업진흥원이 설립되었다. 학회에서는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Federation of Institute of Korean Architect)과 공동으로 정부와 발주처의 인식변화, 건축계의 각성, 건축인의 위상 상승 등을 위해서 건축산업진흥원설립에 중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6) 미래의 학회의 방향

본 학회는 창립 7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회원 증가수를 살펴보면 1948년에 800여 명에서 1977년 2,000여 명, 1997년 5,000여 명, 2005년에 10,000여 명, 2014년 20,000여 명, 2021년 27,0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즉, 초창기에는 회원수 1,000여 명 증가에 약 30년이 소요되었지만 최근에는 10년에 10,000여 명씩 증가하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100주년인 되는 2045년에는 5만명이 넘는 초대형 학회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회위치는 1985년까지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었고, 1985년 6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서울 강남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4층에 임대하여 사용하였다.

초창기에 학회의 성장과 발전을 고려하여 회관건립이 필수적이라는 원로회원들의 의지와 뜻을 모아 사당동 건축회관(5층 규모)에 학회소유자산 건물을 마련하여 1994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8년간 사용하였다.

1995년 학회 창립 5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회원증가와 미래 학회의 성장을 고려하여 방배동에 건축센터 부지를 확보하였다. 특히, 회원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적인 모금으로 현재의 건축센터 건물을 2012년 8월에 준공하고 모든 학회 기능을 사당동에서 방배동으로 이전하여 2022년 1월 현재까지 10년간 사용해오고 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서울에 두 개의 건물을 갖고 있는 대형학회로 성장하였다. 이 모든 것을 회원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노력의 대가로 돌린다.

그러나 정작 회원들이 받는 수혜는 무엇인가? 회원수

5,000명 미만의 군소학회와 비교하여 본 회원들은 어떤 혜택을 받는지 뒤돌아보고 회원들을 위한 학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부단한 상호 작용의 과정이며 끊임없는 대화라고 한다. 오늘의 우리가 있기에는 원로 선배회원님들의 아낌없는 희생과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77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초창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로회장님 및 선배 회원님들이 방향을 잘 세워주었고 특히, 건축회관, 건축센터 건물건립 등으로 후학들이 학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음을 항상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며 우리도 미래의 후학들을 위하여 다시 희망을 갖고 도전해 본다.

임인년 새해 흑범의 진취적인 기운으로 대한 건축학회의 희망차고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4차 산업, 탄소중립, 스마트건축, 메타버스 등의 키워드를 짚어지고 지속가능한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인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지금보다도 더 학술과 교육의 본연에 충실하고,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학회, 무엇보다도 회원들에 의한(by the Member), 회원들의(of the Member) 그리고 회원들을 위한(for the Member)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미래의 대한건축학회의 새로운 꿈을 설계해 본다.ㄷ

참고문헌

1. E.H. Carr, What is History?
2.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
3. 국토일보(<http://www.ikld.kr>)
4.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70년사
5. 강부성(대한민국 건축의 미래를 위하여), 대한건축학회지, 시론, 2020.06
6. 김승희(건축교육 대한 몇가지 질문), 대한건축학회지, 시론, 2014.04
7. 박찬식(건축교육의 遺憾과 有感), 대한건축학회지, 시론, 2014.05
8. 신동우(건축교육에 대한 단상) 대한건축학회지, 시론, 2021.08
9. 이경훈(우리 건축교육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대한건축학회지, 시론, 2021.11
10. 이명식(4차 산업혁명시대 건축의 대응), 대한건축학회지, 시론, 2017.05
11. 이현수(디지털 산업시대의 건축비전과 우리학회 역할 변화), 대한건축학회지, 시론, 2018.07
11. 제해성(국민이 행복한 건축을 위하여), 대한건축학회지, 시론, 2016.10